

공옥출판사 백석기 대표 해군에서 출판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책사랑 이야기



“오 늘도 세계의 항구들은 부두에 등을 밝히고 나를 부른다. 때때로 그 부두에 응답하고 싶을 때가 있다. 바다의 아들로, 세 개의 별을 달고 떠나 오기까지 해군은 실로 내 삶의 전부였다”(《바다여 젠틀맨이여》중에서).

해군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있다. 그는 1959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다의 아들이 되었고, 1989년 해군 삼성 장군이 되기까지 줄곧 바다를 본향 삼아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본향, 그의 삶의 전부는 바다가 아니라 '책과 출판'이 되었다. 분단의 최전선에서 복무했던 그가 이제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공옥출판사 백석기 대표, 그에게 이제 책과 출판은 바다와도 같은 존재이다.

자랑스러운 해군이었던 백석기 대표가 책과 연을 맺은 것은 웅진출판 윤석금 회장을 통해서였다. 예편을 앞둔 시점에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 과정에 참여했던 백석기 대표는 같은 조의 윤석금 회장과 조우했고, 두 사람은 그 이후 의기투합했다. 해군사관학교장을 끝으로 1990년 말 예편과 동시에 백석기 대표는 1991년 1월부터 웅진출판 사장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백 대표가 “36년간 군대 밥을 먹은 사람이 처음부터 경영을 제대로 하겠느냐, 견습 기간을 달라”고 했지만 윤 회장은 “일단 부딪히면서 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덜컥 일을 맡겼다. 백석기 대표는 “그만큼 윤 회장은 대범한 사람이었다”면서 “비록 경영 경험은 없지만 해군 제독을 거친 내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크게 짓는다.

백석기 대표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자. 그리고 올바르게 경영해 사회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키우자”는 마음으로 매진해 웅진출판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에게 바다가 아닌 출판이라는 세계에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이다.”

백석기 대표는 웅진출판을 맡으면서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면 융통성 없다고 비난받기 쉽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원칙의 참 가치를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를 두고 웅진씽크빅 김준희 대표이사는 어느 일간지에 “상사가 원칙주의자면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합리적 기준에 맞으면 그 다음부터 자유니까요. 제가 비교적 합리적인 경영자란 평을 듣게 된 건 그분(백석기) 덕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쓴 바 있다.

그는 1996년부터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국제담당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1998년 10월 출협 부회장으로 참석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그는 한국 출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2008년 IPA 총회의 서울 유치를 이루는데 일조했다.

당초 한국 출판계는 2004년 유치를 추진했지만 2000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려던 독일이 그와 연관지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던 터라 쉽지만은 않았다. IPA 집행위 12개국이 모여 한국과 독일을 놓고 검토한 후 독일을 추천하기로 했다는 공표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때 백석기 대표가 한국 대표로 발언권을 얻어 한국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출판 국가인지, 또한 한국에서 IPA 총회를 개최했을 때 동서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해 발언했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투표로 갈 경우 한국이 2004년 IPA 총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IPA 집행진과 독일이 당황해 하는 동안 가나 대표가 “2004년은 독일에서, 2008년을 한국에서 총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IMF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개최가 한국으로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다. 백석기 대표는 내년 IPA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한 숨은 공로자이다.

그는 9년 가까이 일한 웅진출판을 떠나 지난 1999년 5월 공옥출판사를 설립해 독립했다. 사회과학서적과 문학, 아동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공옥출판사에서 백석기 대표는 출판인생 제2기를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출판인생 제2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2003년 4월 협성대학교 총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협성대 총장으로 활동하느라 출판 관련 일은 지인들에게 일임해 둔 상태이다.

백석기 대표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던 스무 살 때부터 일기를 써왔다. 날마다 노트 한 페이지씩 써온 것이 이제는 다락방 하나를 채우고 있다. 그 일기에는 바다에서 살아온 36년의 기록이 충실하게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웅진출판에서 그리고 공옥출판사에서 또 한 출협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지난 9년여의 기록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난 4년의 기록은 협성대 총장으로서의 기록에 충실했을 게다.

그러나 “요즘 해군 후배들을 만나면 ‘난 출판인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는 백석기 대표 스스로의 표현처럼, 앞으로 남은 일기장의 기록에는 책과 함께 인생을 결실하는 기록들로 충일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E]